

두 남자 이야기 '투 톱' 영화 다시 뜬다

'라디오 스타' 이어 '애정결핍이...' '열혈남아' 등
색다른 소재 무장... 톱스타들 앞세워 흥행몰이

장동건·이정재 주연의 '태풍', 권상우·유지태의 '야수', 황정민·류승완의 '사생결단', 박중훈·천정명의 '강적'...

올 상반기 개봉했던 남성 투톱 영화다. 범죄와 폭력을 소재로 남자들의 우정과 의리, 거친 세계를 다뤘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색다른 소재로 무장한 '두 남자 이야기'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반기 남성 투 톱의 물꼬를 뜬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 스타'. 88년도 가수왕 시절을 잊지 못하는 철부지 가수 최 곤(박중훈)과 사람 좋고 인정 많은 최 곤의 매니저 박민수(안성기)를 통해 가슴 따뜻한 두 남자의 우정을 전한다.

제목부터 심상치않은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17년 동안 단 둘이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아버지(백윤식)와 아들(봉태규)의 코믹 연기가 볼거리. 개성과 배우 백윤식의 카리스마와 엽기적인 연기도 훌륭하게(?) 소화한 봉태규는 찰떡 공감을 자랑한다.

최근 개봉한 '열혈남아'는 설경구와 조한선이 열연한 영화다. '조폭'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모성애'를 중심으로 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개인사를 풀어 나간다. 인정머리 없이 냉혹하지만 내면에는 외로움을 지닌 재문(설경구)과 어머니의 병환으로 조폭에 발을 들인 마음 따뜻한 건달 치국(조한선)은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끌어안는다.

'조용한 세상'은 김상경과 박용우가 주연을 맡은 미스터리 휴먼드라마. 소녀연쇄살종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김형사(박용우)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사친작가 정호(김상경)가 사건 해결을 위해 의기 투합한다는 내용이다.

박용우는 영화 '뷰티풀 선데이'에서도 형사 역을 맡아 남공민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강도사건으로 식물 인간이 된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 조직과 손잡고 비리를 저지르는 강형사(박용우)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 사랑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고 괴로워하는 민우(남공민)의 실타래처럼 얽힌 인연이 교차된다.

장생진 외모와는 달리 유난히 망가지는 장면이 많은 '코믹 연기'에서 실력을 발휘해온 차승원은 코미디 영화 '이장과 군수'를 촬영중이다. 차승원의 파트너는 그동안 감초같은 조연으로 사랑받은 유해진. 어린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하던 차승원(차승원)과 만난 부반장의 설움을 느

끼던 대규(유해진)가 각각 이장과 군수가 돼 펼쳐는 좌충우돌 소동을 담고 있다.

'주유소 습격사건' '광복절 특사'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바람의 전설'로 데뷔한 박정우 감독의 두번째작인 '쏟다'는 감우성과 김수로가 공동 주연을 맡아 내년 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박만수(감우성)와 전과 15범이라는 기록을 가진 양철곤(김수로)은 우연히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고, 정반대 성격으로 보였던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하룻동안 짜릿한 일탈을 꾸민다.

강지환·김재욱이 주연을 맡은 '방문자'는 바른 생활 미소 청년이 불만쟁이 남자를 구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시간감사 호준(김재욱)은 고장난 문 때문에 욕실에 갇히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 전도를 위해 근처를 지나던 계상(강지환)은 우연히 탈진 상태의 호준을 구하게 되고, 게으르고 무능한 회의주의자와 소수와 종교의 성실한 전도자간의 교감이 펼쳐진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애정결핍이 두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열혈남아'



'쏟다'

주목! 이영화

'국민 여동생' 문근영의 변신

'사랑 따윈 필요없어'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변신했다. 영화 '사랑 따윈 필요없어'(감독 이철하)에서 문근영은 본격적인 성인 연기에 도전해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다.

2002년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TBS 방송의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차가운 여자 류민(문근영)과 그녀의 유산을 노리는 호스트 줄리앙(김주혁)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



은 류민에게 사라진 오빠 행세를 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줄리앙은 점점 연기가 아닌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둘 사이에는 오해와 거짓, 그리고 이해와 진실이 오간다.

CF감독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철하 감독은 장년 우포늪, 보성 녹차밭, 삿포로 눈밭 한가운데 선 나무 등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사한다. 세련된 영상미에 비해 다소 힘이 빠진 스토리 라인은 아쉬운 부분이다.

소녀티를 벗고 사랑에 아파하는 '여인'으로 출연한 문근영은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만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연기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사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줄리앙 역을 맡은 김주혁도 무난한 연기에 그쳤다. 15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공효진 'M'서 강동원 약혼녀로

영화계는 지금

영화배우 공효진(사진)이 강동원의 약혼녀가 됐다.

공효진은 이명세 감독의 신작인 'M'에서 주인공 민우 역을 맡은 강동원의 약혼녀 은혜로 출연한다.

'형사'에서 이명세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강동원이 베스트셀러 작가 역을 맡은 'M'은 민우가 현재의 연인과 첫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현빈과 함께 '백만장자의 첫사랑'을 찍었던 이연희가 민우의 첫사랑 '미미' 역을 맡았다.

'플래시백' 등에 출연한 공효진은 올해 '가족의 탄생'서 문소리 등과 호흡을 맞췄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사랑 따윈 필요없어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신한 배우 문근영의 성숙한 연기를 만날 수 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오가는 사랑이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열혈남아 주목한이 난무하는 조폭 영화가 아닌 '모성애'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그려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시일런트 힐 게임을 원칙으로 한 호러 스릴러물로 30년 전, 회색로 모든 것이 사라진 전설의 마을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일들을 다룬다.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다섯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영화를 영화로 옮겼다. 우연히 사신의 노트를 주운 주인공과 사신 탐정의 숨막히는 두뇌게임이 시작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여수 씨너스
진혹한 출근 돈을 위해 아이를 유괴하지만, 도리어 자신의 아이를 유괴하는 어설픈 유괴범의 고군분투기를 그렸다. 코믹 연기의 제왕 김수로가 열연했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프래스티지 최고의 미술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두 미술사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능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가을로 삼풍백화점 붕괴를 소재로 '번지 점프를 하다가' 김대승 감독이 만든 멜로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하이,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악마는 프리다를 잡는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패션 잡지사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의 고군분투기를 중심으로 패션세계를 유쾌하게 풍자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순천 롯데, 여수 씨너스
미움아- 개 '미움아'와 소녀의 따뜻한 우정을 그렸다. 사랑 못지 않은 연기를 선보인 미움아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여수 씨너스
거룩한 계보 개성있는 블랙 유머로 유명한 '정진'감독과 조폭이 만났다. 피할 수 없는 두 남자의 싸움이 벌어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여수 씨너스

제주도 웰빙 패키지 여행

₩149,000~

·광주·제주 왕복항공 2박 3일 정기편왕·숙박·식사·관광·모임
매주 월, 화 2명이상 출발보장

● 월요일출발 1인 ₩139,000

리틀투어클럽
1598-8880 / 02-223-8903

무등산업

소리없이 다가오는 초음파-
전기히터의 명품 플러미우히터

무등산업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초음파-
히터와 전기히터의 명품 플러미우히터